

한동연 익산시의회 부의장,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익산시의회 한동연 부의장이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한동연 부의장은 그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지역발전 공헌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3선 의원으로 현재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동연 부의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의장의 중책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등을 발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공원 조성,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돌봄사각지대 해소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한동연 부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자수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콘텐츠 스타트업 최우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8명의 학생이 2023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캠프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캐릭터팀), 우수상(일러스트레이션팀), 아이디어상(웹툰팀, 영상미디어팀)을 수상했다. 2023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캠프는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과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도내 대학 연합 캠프 운영을 통한 우수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주최하였고,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캐릭터, 웹툰,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참가했다. 캐릭터 분야는 오연빈(4학년, 팀장), 여다비(4학년)팀이, 웹툰 분야는 이승중(팀장 3학년), 문지은(3학년), 이근우(3학년), 박규나(3학년)팀이, 영상미디어 분야는 김도은(팀장, 3학년), 노연우(4학년), 임형락(3학년)팀이,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김어진(팀장 3학년), 김승미(4학년), 김재이(4학년), 유서인(3학년), 서가은(3학년), 안주연(3학년), 윤세린(3학년), 하지연(3학년), 송승연(2학년)팀이 참가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여다비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 강의를 듣고 멘토링을 받으며 콘텐츠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팀원과의 협업과 열정이 수상으로 이어져서 매우 뿌듯하다. 이 경험이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주었고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디어상을 받은 김도은 학생은 "3일간의 캠프는 미디어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앞으로 실력을 더 쌓아서 군산대학교를 빛내는 영상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남원소방서, 뱀사골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7일,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뱀사골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격려사, 결의문 낭독, 수난 인명구조 장비 사용 및 구급대원 CPR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일 11명으로 구성, 7월 10일부터 8월 18일(40일간)까지 남원 뱀사골 위험지역에 배치해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은 물론 위험지역 순찰,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중심으로 남원소방서 전 직원은 피서객의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영혁신분야 '신지식인' 선정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농사연금제 신설 등 지역사회 기여 공로 인정받아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 선정하는 경영혁신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김종백)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1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을 개최하고 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국신지식인협회의 신지식인 상은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사회를 혁신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임 조합장은 "농민이 애국자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최초로 전주농협 자체적인 농민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매년 수여해오고 있으며, 이렇게 농민연금제도를 수여한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임 조합장은 농업 역사 이래 최초로 농사연금제도를 신설해서 농민조합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주농협이 농사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민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농민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온 농사연금 지급액은 16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사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자, 농민조합원들 스스로 "우리들의 농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농협 전이 용 운동이 일어났으로써, 전주농협이 2021년 2월에 전북농협 최초로 '상호금융 사업장 3조원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 조합장을 주축으로 한 전주농협은 지역사회에서도 김장김치 나눔, 농산물 생필품 꾸러미 나눔, 사랑의 쌀 전달, 지역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영혁신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제41회 신지식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옥기 기자



김제시의회 의원들,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양운엽 의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이 전라북도 시군회의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7일 시의회의 의정실에서 표창을 전수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도내 기초회의위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운엽 의원은 김제시 마 선거구(용지,백구,금구,점산)를 대표하는 초선 의원이지만 집행부에서 다져진 다양한 분야의 행정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제9대 김제시의회 입성과 동시에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하며 시장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전한 재정운영 등 시장 전반을 두루 살펴면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제9대 김제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지난 1년 동안 김제시를 성장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119안전센터 설립, 종대재해 예방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새로운 도서관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김제시를 아이 낳아 기르기에 좋은 안전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 도출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양운엽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발전하는 김제시를 위해 한걸음도 부족함없이 다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이 전라북도 시군회의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7일 시의회의 의정실에서 표창을 전수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도내 기초회의위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라 선거구(봉남,황산,금산,신봉)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개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제9대 김제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지난 1년 동안 공공비축미 신동진행 매입제한 철폐 촉구 건의안 발의를 비롯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기회발전특구 유치, 사회적 경제 육성, 김제시 출산지원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관할 확보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선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김제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김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천현 우석대 총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우석대학교 남천현 총장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범국민 실천 캠페인이다. 우석대 안주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남천현 총장은 다음 주자로 신광호(유아특수교육과 4년) 총학생회장을 추천했다. 남천현 총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선택이다"라며 "우리 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소성면 백운기 면장, 경로당 방문 현장 행정 펼치

정읍시 소성면 백운기 면장이 지난 6일 부임 첫 행보로 관내 경로당 36개소를 순회하며 지역 현안 및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미철 집중호우 예방을 위해 경로당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기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로부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면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을 순회하며 들은 애로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마을 배수로 관문 수리 요청 등으로 불편하고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은 "비쁜 일정 속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운기 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범규 전주대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전주대학교 이범규 교수(환경생명과학과)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국내 395개 과학기술학회 소속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학술지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이 논문은 한국식품생명공학회(JPB)에 게재한 '유전자 변형 식물체 연구에서의 안전관리 고찰'로써, 유전자 변형 식물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환경 유출 사고 방지 대책을 제시한 연구 결과다. 이범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전자 변형 식물체의 연구 안전성 고도화에 이바지해 국내 식품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청소년단체 연합캠프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명규)는 최근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 한국스카우트, 한국해안소년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교내 연합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캠프에서 2023년 청소년 단체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과 함께 한술만 짓기, 단체별 교육활동, 어우렁 더우렁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텐트치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였다. /전주=정은성 기자

이미목 · 손동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6일 이미목 부의장과 손동규 운영행정위원장이 전라북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여성의원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특히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진안군민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 손 위원장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과 군정의 가교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지역의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진안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군민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진안=유태만 기자